

남자 대학생의 강인성 및 취업스트레스와 흡연태도와의 관련성

이인숙¹, 송민선^{2*}

¹한남대학교 간호학과, ²건양대학교 간호대학

The Relationship between Hardiness, Job-seeking Stress and Smoking Attitude among Male College Students

In Sook Lee¹, Min Sun Song^{2*}

¹Department of Nursing, Hannam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요약 대학생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취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흡연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의 강인성 및 취업스트레스와 흡연태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흡연태도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일부 지역의 남자 대학생 14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t-test, ANOVA, Kruskal Walli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흡연자인 남자 대학생은 22.1%였으며, 대상자의 흡연상태에 따라 흡연태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H=28.26, p<.001$). 대상자의 강인성 점수가 높은 군($t=-3.27, p=.001$)과 취업스트레스가 낮은 군($t=4.40, p<.001$)에서 흡연태도가 바람직하게 나타났다. 강인성과 흡연태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18, p=.028$), 취업스트레스와 흡연태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8, p=.001$). 또한, 대상자의 흡연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흡연자($\beta=.50, p<.001$), 취업스트레스($\beta=-.23, p=.015$), 과거흡연자($\beta=.22, p=.016$)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4.3%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학교와 보건소 등을 통한 상담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을 능동적으로 조절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남자 대학생의 흡연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College students face serious difficulties while seeking jobs, leading to a high degree of stress, which is thought to affect their attitude towards smok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hardiness, job-seeking stress, and the attitude towards smoking among students, and to further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smoking attitud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dministered to 145 student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program, t-test, ANOVA, Kruskal Walli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mokers constituted 22.1% of the sample. The study showed that smoking attitudes varied according to the smoking status ($H=28.26, p<.001$). The smoking attitude was seen to be desirable in the high group ($t=-3.27, p=.001$) and low job-seeking stress group ($t=4.40, p<.001$).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hardiness and smoking attitude ($r=.18, p=.028$).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smoking attitude ($r=-.28, p=.001$). Also, the factors affecting the smoking attitude were non-smoker respondent ($\beta=.50, p<.001$), job-seeking stress ($\beta=-.23, p=.015$), former smoker respondent ($\beta=.22, p=.016$)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24.3%. Therefore, school and health public center counseling and employment support programs need to help students manage and cope with stressful situations to change their attitude towards smoking in a desirable direction.

Keywords : Hardiness, Job-seeking stress, Smoking attitude, Male student, Counseling, Employment support

*Corresponding Author : Min Sun Song(Konyang Univ.)

email: mssong@konyang.ac.kr

Received February 5, 2021

Revised March 5, 2021

Accepted May 7, 2021

Published May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흡연은 국민건강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위험요인이며,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망원인으로 우리나라 연령대별 현재 흡연율은 19~29세가 24.8%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자는 37.8%, 여자는 10.2%였다[1]. 중고등학생 남자 흡연율은 9.5%, 여자 흡연율은 3.1%였으며, 청소년 중 한달 내 흡연 경험이 있는 남학생이 10명 중 1명 수준으로 건강행태 중 20, 30대의 흡연은 다른 연령에 비해 많았고, 고등학생도 중학생보다 흡연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청소년 흡연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2].

청소년기는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부담이 흡연이라는 행위로 나타나며[3],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엄격한 규제에서 벗어나 비교적 흡연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흡연량이 많아지고 습관화되며 니코틴 중독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4].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선택한 흡연은 니코틴 의존도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의 증가는 금연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5,6]. 이러한 흡연 비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20대의 흡연 특히 남자 대학생의 흡연은 2018년 34.9%에서 2019년 37.8%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흡연자 중에서도 금연계획률이 16.6%에 그치고 있어[1]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흡연을 하는 대학생들은 취업 스트레스와 취업 불안이 높았으며, 자아존중감은 낮았다[7]. 특히 가중되는 취업난과 과도한 학업량의 스트레스는 흡연을 더욱 조장시키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흡연량이 증가한다고 하였다[8]. 남자 대학생들은 흡연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같은 심리적 이득, 친구나 선배를 사귀기 위한 도구, 학연과 지연을 포함한 흡연이라는 유대감을 느껴 흡연을 일상화하게 되며, 스트레스 감소, 불안이나 외로움이 감소하였다고 하였다[7,9].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적극적으로 생활에 임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강인성이 높다고 하는데, 강인성은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적극적으로 생활의 변화를 발전의 계기로 삼고 도전하는 태도를 말한다[10]. Lee와 Kim [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흡연이 고등학생들의 흡연보다 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는 행위로 제시하며, 흡연 시작 연령이 낮을수록, 1일 평균 흡연량이 많을수록 건강 관련 강인성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강인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

서도 건강하게 생활한다고 하였다[3]. 일반적으로 여자 대학생들보다 남자 대학생들은 오랜 기간 흡연을 하더라도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게 평가하고 있어 남자 대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고 이들의 흡연태도를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최근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흡연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니코틴 의존도[11], 금연관련 프로그램[12], 식생활 습관[13]들이 있었으며, 남자 대학생들의 흡연 이유와 관련한 흡연 경험을 조사한 Park [9] 연구 외에는 거의 없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과 더불어 대학생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취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한 흡연율의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남자 대학생들은 성인들보다 흡연 기간이 짧으며 니코틴 의존도가 낮아 흡연이 습관화하는 것을 감소시키기 적절한 시기로 흡연은 향후 성인기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14].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취업스트레스와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강인성이 흡연태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남자 대학생들의 흡연률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대학생생활을 이룰 수 있는 중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의 강인성 및 취업스트레스와 흡연태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강인성, 취업스트레스 및 흡연태도를 파악한다.

둘째, 남자 대학생의 강인성, 취업스트레스 및 흡연태도에 대해 파악한다.

셋째, 남자 대학생의 강인성과 취업스트레스에 따른 흡연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남자 대학생의 강인성, 취업스트레스 및 흡연태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남자 대학생의 강인성 및 취업스트레스가 흡연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남자 대학생들에게 강인성 및 취업스트레스와 흡연태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일부지역(경기도, D광역시) 대학교의 만 18세 이상의 남자 재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총 145명이었다. 제외기준은 현재 휴학생, 군입대자 및 외국인, 간호대학 재학생으로 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15], 회귀분석을 위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예측변수 9개로 하였을 때, 141명이 산출되어 탈락율을 고려하여 150명에게 설문하였으며 설문지가 미흡한 5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145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표본 수는 적절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학년, 전공, 거주 형태, 주관적인 건강상태, 가족의 흡연여부, 현재 흡연상태, 음주빈도를 확인하였다.

2.3.2 강인성

Bartone 등[16]이 수정·보완한 것으로 Cho [1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45문항이며 하위요인으로는 몰입 15문항, 통제 15문항, 도전 15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강인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 [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5이며, 하위요인으로 몰입 .73, 통제 .74, 도전 .61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7이었다. 하위요인으로 몰입 .72, 통제 .75, 도전 .66이었다.

2.3.3 취업스트레스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Hwang [18]의 취업스트레스 설문지를 참고하여 Kim과 Kang [19]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취업스트레스 검사는 5개 하위요인,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Kim과 Kang [1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82~.876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6이었으며, 하위요인으로 성격 .91, 가족환경 .86, 학업 .87, 학교환경 .85, 취업불안 .84였다.

2.3.4 흡연태도

흡연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WHO [20]가 흡연에 대한 조사방법 회의에서 발간한 Guidelines for the conduct of tobacco smoking surveys of the general population의 설문지를 Park과 Kang [21]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평가는 바람직한 대답은 2점, 미온적인 대답은 1점, 바람직하지 않은 대답은 0점 처리함으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태도에 있어서 바람직한 태도를 보인다. Park과 Kang [21]의 연구에서 흡연태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65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6이었다.

2.4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0년 7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재학 중인 남자 대학생으로 연구시행을 위해 게시판에 모집문건을 부착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였다. 자료 수집을 시행한 해당학교는 전공수업에서 대면과 비대면의 수업을 병행하고 있어 대면수업시기를 확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조사 방법을 연구보조원에게 교육한 후, 연구보조원이 일반적 특성, 강인성, 취업스트레스, 흡연태도에 대한 설문지를 나누어준 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대면을 피하기 위해 단과대학 로비 혹은 기숙사에 있는 학생 휴게 공간의 수거함에 넣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으며, 설문지 소요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H 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승인번호: 20-02-02-0905)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연구자가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가 교과과정의 성적이나 수업과 무관함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 동안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3년간 보관 예정이며, 보관기간이 끝난 후에는 파일을 삭제하고 관련 서류는 폐기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2.6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 22.0 통계 프로그램

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의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강인성 및 취업스트레스, 흡연태도는 t-test, ANOVA, Kruskal Wallis test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강인성 및 취업스트레스에 따른 흡연태도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강인성, 취업스트레스 및 흡연태도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확인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강인성 및 취업스트레스가 흡연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강인성, 취업스트레스, 흡연태도의 차이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45명으로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평균 21.57±1.88세, 학년은 1학년이 60명(41.4%)으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 48명(33.1%), 3학년 22명(15.2%), 4학년 15명(10.3%)의 순이었다.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이 79명(54.5%)이었으며, 공학계열 33명(22.8%), 의료보건계열이 17명(11.7%), 자연과학계열 16명(11.0%)이었다. 거주 형태는 부모나 부모외 가족과 동거하는 학생이 55명(37.9%)이었으며, 자취 15명(10.4%),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75명(51.7%)으로 가장 많았다.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117명(80.7%)이었다. 가족의 흡연 여부로 '흡연하지 않는다'가 83명(57.2%)이었으며, 본인의 현재 흡연상태로는 '현재 피운다'로 답한 현재 흡연자는 32명(22.1%), '과거에는 피웠으나 지금은 피우지 않는다'로 답한 과거흡연자는 23명(15.8%), '한 번도 피운 적 없다'로 답한 비흡연자는 90명(62.1%)이었다. 음주빈도는 1개월에 1회 이하가 53명(36.5%)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하지 않는 학생도 12명(8.3%)이었다.

대상자의 현재 흡연상태에 따라 흡연태도가 달랐으며 (H=28.26, $p < .001$), 사후검정결과 흡연태도는 흡연자나 과거흡연자보다 비흡연자에서 바람직한 태도를 보였다. 대상자의 음주빈도에 따라 취업스트레스(H=10.75, $p = .013$)와 흡연태도(F=3.35, $p = .021$)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사후검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nd the difference of hardiness, job-seeking stress and smoking attitud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Hardiness		Job-seeking stress		Smoking Attitude	
			M±SD	t or F (p)	M±SD	t or F or H (p)	M±SD	t or F or H (p)
Grade	Freshman	60 (41.4)	3.27±0.34	0.31 (821)	2.30±0.72	2.27 (083)	1.42±0.33	1.40 (245)
	Sophomore	48 (33.1)	3.26±0.29		1.97±0.78		1.51±0.29	
	Junior	22 (15.2)	3.33±0.34		2.26±0.75		1.37±0.30	
	Senior	15 (10.3)	3.25±0.32		2.41±0.75		1.39±0.32	
Major	Humanities or social sciences	79 (54.5)	3.27±0.31	0.65 (584)	2.22±0.81	0.52* (915)	1.45±0.34	7.38 (.061)
	Engineering department	33 (22.8)	3.24±0.30		2.22±0.71		1.43±0.26	
	Health science	17 (11.7)	3.36±0.39		2.12±0.87		1.55±0.24	
	Natural sciences	16 (11.0)	3.31±0.33		2.13±0.44		1.27±0.30	
Residence type	Living with parents or family	55 (37.9)	3.31±0.31	0.99 (372)	2.17±0.73	0.10 (910)	1.39±0.29	1.03 (.359)
	Alone	15 (10.4)	3.34±0.37		2.27±0.84		1.47±0.29	
	Dormitory	75 (51.7)	3.24±0.32		2.20±0.77		1.46±0.33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117 (80.7)	3.30±0.31	2.07 (130)	2.13±0.77	5.28* (071)	1.43±0.32	0.89 (.414)
	Usual	19 (13.1)	3.15±0.30		2.55±0.46		1.50±0.25	
	Poor	9 (6.2)	3.22±0.41		2.35±0.88		1.33±0.34	
Family smoking	Yes	62 (42.8)	3.30±0.38	0.75 (455)	2.26±0.84	0.80 (426)	1.42±0.30	-0.68 (.498)
	No	83 (57.2)	3.26±0.27		2.15±0.69		1.45±0.32	
Smoking status	Currently smoker	32 (22.1)	3.33±0.31	0.95 (391)	2.12±0.68	2.10 (126)	1.21±0.19 ^a	28.26* (<.001) a <b< b=""></b<>
	Former smoker	23 (15.8)	3.21±0.33		2.49±0.68		1.36±0.30 ^a	
	Non-smoker	90 (62.1)	3.27±0.32		2.15±0.79		1.54±0.31 ^b	
Frequency of drinking	No drinking	12 (8.3)	3.15±0.29	1.90 (133)	2.52±0.77	10.75* (013)	1.38±0.35	3.35 (.021)
	≤1/month	53 (36.5)	3.32±0.33		1.99±0.68		1.53±0.30	
	1/week	43 (29.7)	3.32±0.34		2.16±0.85		1.44±0.31	
	≥2/week	37 (25.5)	3.20±0.28		2.43±0.68		1.33±0.30	

* Kruskal-Wallis

3.2 대상자의 강인성, 취업스트레스 및 흡연태도

대상자의 강인성, 취업스트레스 및 흡연태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강인성은 전체 3.28 ± 0.32 점이며, 하위영역인 몰입 3.39 ± 0.46 점, 통제 3.45 ± 0.46 점, 도전 2.98 ± 0.31 점이었다. 취업스트레스는 전체 2.20 ± 0.76 점으로 하위영역인 개인 성격 2.28 ± 0.86 점이 가장 높았으며, 학업 영역이 1.82 ± 0.72 점으로 가장 낮았다.

Table 2. Hardiness, job-seeking stress, and smoking attitude (N=145)

Variables	Categories	Mean±SD	Mean±SD (5points)	Min-Max
Hardiness	Immersion	50.86±6.73	3.39±0.45	2.60-4.73
	Control	51.62±6.49	3.45±0.46	2.40-4.53
	Challenge	44.52±3.45	2.98±0.31	2.27-6.53
	Total	147.41±14.42	3.28±0.32	2.53-4.89
Job-seeking stres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13.69±5.17	2.28±0.86	1.00-4.17
	Family environment	10.84±4.14	2.17±0.83	1.00-4.00
	Academic stress	8.97±3.48	1.82±0.72	1.00-3.31
	University environment	8.86±3.32	2.21±0.83	1.00-4.25
	Job-seeking anxiety	5.95±2.60	1.98±0.87	1.00-4.00
	Total	48.31±14.44	2.20±0.76	1.00-3.59
Smoking attitude	Total	28.71±6.25	1.44±0.31	0.75-1.90

3.3 대상자의 강인성 및 취업스트레스에 따른 흡연태도의 차이

대상자의 강인성 및 취업스트레스에 따른 흡연태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강인성 및 취업스트레스는 평균을 기준으로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구분하였다. 대상자의 강인성에 따른 흡연태도는 강인성이 높은 군은 1.53 ± 0.28 점으로 낮은 군 1.37 ± 0.32 점에 비해 흡연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3.27, p=.001$).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에 따른 흡연태도는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군이 1.33 ± 0.31 점, 낮은 군이 1.54 ± 0.28 점으로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취업스트레스가 낮은 군이 흡연태도 점수가 높았다($t=4.40, p<.001$).

Table 3. The difference of smoking attitude according to hardiness and job-seeking stress (N=145)

Variables	Categories	Smoking attitude	
		M±SD	t(p)
Hardiness	High (n=59)	1.53±0.28	-3.27(.001)
	Low (n=86)	1.37±0.32	
Job-seeking stress	High (n=72)	1.33±0.31	4.40(<.001)
	Low (n=73)	1.54±0.28	

3.4 대상자의 강인성, 취업스트레스 및 흡연태도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강인성, 취업스트레스 및 흡연태도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강인성과 취업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r=-.60, p<.001$)를 보였으며, 강인성과 흡연태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18, p=.028$). 취업스트레스와 흡연태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8, p=.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hardiness, job-seeking stress and smoking attitude (N=145)

Variables	Hardiness	Job-seeking stress
	r(p)	
Job-seeking stress	-.60 (<.001)	
Smoking attitude	.18 (.028)	-.28 (.001)

3.5 대상자의 강인성 및 취업스트레스가 흡연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강인성 및 취업스트레스가 흡연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현재 흡연상태와 음주빈도를 더미처리하여 투입하였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강인성과 취업스트레스를 단계별로 투입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Table 5와 같다.

본 회귀모형의 기본 가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잔차의 자기상관(Durbin-Watson의 통계량=1.476), 잔차의 정규성과 선형성(잔차의 정규 P-P 도표와 히스토그램), 잔차의 등분산성(산점도)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모형의 오차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공차한계가 .62 ~ .97로 1.0이하였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2~1.56으로 기준값인 10을 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대상자의 흡연상태와 음주빈도가 투입된 1 단계 모형은 18.1%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본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1.60, p<.001$). 강인성이 추가 투입된 2단계 모형은 연구대상자의 흡연태도에 대하여 21.6%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본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Delta R^2=.040, F=10.91, p<.001$). 마지막으로 3단계 모형에는 취업스트레스가 추가되었으며, 연구대상자의 흡연태도에 대해 약 24.3% 설명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Delta R^2=.032, F=10.26, p<.001$). 최종 모형에서 연구대상자의 흡연태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준 예측변수는 비흡연자($\beta=.50, p<.001$), 취업스트레스($\beta=-.23, p=.015$), 과거흡연자($\beta=.22, p=.016$)의 순서로 확인되었다.

Table 5.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variables influencing smoking attitude (N=145)

Variables	Step 1				Step 2				Step 3			
	B	β	t	p	B	β	t	p	B	β	t	p
Smoking status (Former smoker)	0.14	.16	1.81	.073	0.16	.19	2.15	.033	0.18	.22	2.44	.016
Smoking status (Non-smoker)*	0.31	.48	5.23	<.001	0.32	.50	5.55	<.001	0.32	.50	5.60	<.001
Frequency of drinking ⁺	-0.04	-.12	-1.52	.130	-0.04	-.11	-1.41	.160	-0.03	-.09	-1.18	.241
Hardiness					0.20	.20	2.70	.008	0.07	.07	0.76	.448
Job-seeking stress									-0.09	-.23	-2.47	.015
R ²	.198				.238				.270			
Adj. R ²	.181				.216				.243			
ΔR^2					.040				.032			
F	11.60				10.91				10.26			
p	<.001				<.001				<.001			

*Reference Group: Currently smoker, +Reference Group: No drinking

4. 논의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들의 강인성과 취업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이들이 흡연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흡연태도를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강인성은 전체 3.28점이며, 하위 영역인 몰입 3.39점, 통제 3.45점, 도전 2.98점으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영역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도구는 아니지만, 남녀 대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Kim 등[22]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강인성 정도는 3.34점으로 근소한 차이였지만, 하위 영역에서 자기투입(몰입) 3.41점, 도전 3.31점, 통제 3.30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와는 다소 다른 양상의 결과였다. 이는 대상자 범위와 측정 도구의 차이로 생각된다. 그러나 강인성은 하위영역 점수보다는 강인성의 몰입과 도전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별개의 차원이 아닌 상호 관련이 있고[23], 학습과정을 통해 강화될 수 있으므로[24] 강인성을 토대로 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긍정적 대처방식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취업스트레스는 전체 2.20점으로 하위영역인 개인 성격이 2.28점이 가장 높았으며, 학업 영역이 1.82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2.42점, 학교환경 2.71점, 취업불안 1.75점으로 나타난 Cho [25]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양상이었던 것은 최근 많은 대학에서 취업준비 지원을 위해 취업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흡연태도는 2점 만점에 1.44점으로 조사되어, Lee [26]의 연구에서 20점 만점에 남자 대학생이 13.1점과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상자의 현재 흡연상태에 따라 흡연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흡연자나 과거 흡연자보다 비흡연자에서 바람직한 흡연태도를 보였던 점은 선행연구[26]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태도는 개인의 의도 및 행동에 연관성이 있고, 행위 결과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흡연태도는 미래의 흡연 가능성, 흡연 욕구, 흡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대상자의 태도와 신념이자 금연을 실천하는 의사결정의 중요요소이다[27]. Kim 등[28]에 따르면 금연 시도를 해보거나 금연 시도 횟수가 많을수록 금연행위 변화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하여 흡연에 대한 태도가 금연 행위 변화단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내에서도 학생들의 복지시설에 정기적인 홍보와 흡연 예방교육을 통해 부정적인 흡연태도와 금연 의지를 갖도록 하여 금연을 유도하거나 흡연 감소를 동기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대학생의 경우도 흡연과 음주, 스트레스 등의 건강행태의 문제점이 동반된다고 하였다[29]. 대학생 시기는 대학교 입학 이후

에 규제로부터의 해방과 재학 중에는 졸업 후 진로 문제를 비롯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더 많은 건강위험 행위에 노출되고, 자유롭게 생활함으로써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위험 행위들이 습관화되어 버리기 쉬운 취약 계층이다[30]. 특히 이 시기는 이미 청소년기부터 누적되어 온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요인에 의해 평생 건강의 기틀이 구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지만,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아직 외부로 표출되지는 않는 관계로 건강 문제에 대해 매우 소홀한 시기일 수도 있다[31]. 따라서 대학생의 일상적인 생활습관이나 생활양식에서 건강을 저해하는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습관 같은 위험 요인들을 감소시켜 자신이 건강에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학교에서는 건강행태 변화 및 환경에 대한 통제력 강화 등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여야 한다.

본 연구결과 강인성과 취업스트레스에 따른 흡연태도에서 강인성이 높은 군과 취업스트레스가 낮은 군의 흡연태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인성과 흡연태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취업스트레스와 흡연태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강인성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흡연태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와 Kim [3]의 연구에서 강인성이 흡연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 것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취업스트레스와 압박감은 적절한 여가활동을 방해하여 부정적 정서를 촉진함과 함께 흡연을 유발한다는 결과[32]와 유사한 맥락이다. 취업스트레스와 취업 불안은 흡연과 유의한 관련이 있어서 건전한 방향의 스트레스 관리 유도 및 체계적인 스트레스 관리 필요성을 보고한다. 또한 강인성은 취업스트레스와 중간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강인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완충할 수 있다[33]. 따라서, 낮은 취업률과 높은 실업률이 사회의 문제인 만큼 상담 현장이나 학교, 지역사회에서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조절관리나 스트레스 관리 역량 강화 및 강인성 증진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감소뿐 아니라 강인성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흡연상태와 취업스트레스가 본 연구 대상자인 남자 대학생의 흡연태도를 약 24.3% 설명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현재 흡연자일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흡연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하였다. 대학생 집단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대학시절 흡연자가 평생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29], 흡연은 신체적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7]. 결국 개인의 건강 및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므로 흡연에 대한 예방이 절실한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흡연을 유발하는 상황은 술자리였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이 흡연을 하는 것, 스트레스, 분노,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상황은 흡연과 연관성이 높았다[34]. Fainsilber, Stettler와 Gurtovenko [35]에 따르면 스트레스 관리는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알코올과 담배의 사용과 관련된 정서적 조절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이 흡연을 즐기거나 니코틴을 통한 보상이 되지 않도록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 취업에 있어서 어떤 부담감을 갖는지 어떠한 불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나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취업스트레스 영역 중 개인 성격 특성에 점수가 높아 개인의 부정적 감정이나 상황을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비록 본 연구에서 강인성은 흡연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선행연구에 따라 강인성이 주는 조절 혹은 매개효과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흡연 태도의 변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태도는 선천적인 것이 아닌 개인의 행동 성향이며, 개인이 타인들과의 접촉, 자연적 혹은 문화적 환경과의 접촉에 있어서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학습되며, 인지적 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또한 태도, 규범 및 인지된 행동 통제는 금연 의도에 중요한 예측요인이므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금연강화 및 전략이 필요하다[36].

대학생의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시점으로 흡연에 대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지만 현재 흡연을 하는 대상자나 혹은 비흡연자이지만 간접흡연에 노출된 남자 대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흡연의 유해함과 금연의 유익함에 대한 교육과 금연환경으로의 접촉 전략은 건강한 대학생활과 건강한 생활양식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추후 건강한 성인기 이행에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에 따른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이므로 전체 남자 대학생을 대표하는 결과로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추후 여자 대학생들에게도 연구를 확대할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흡연태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추가하고 반복 연구를 통해 강인성이 주는 매개효과 혹은 조절효과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남자대학생의 강인성과 취업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이들이 흡연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된 다. 특히 취업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인성과의 관계와 흡연태도와 관련한 여러 요인들 가운데 취업스트레스가 주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는 학교와 지역사회내 자원들을 활용하여 상담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을 능동적으로 조절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남자 대학생의 흡연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건강한 대학생활이 되도록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 145명을 대상으로 강인성 및 취업스트레스와 흡연태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강인성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흡연태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흡연상태와 취업스트레스가 본 연구 대상자인 남자 대학생의 흡연태도에 대해 약 24.3%를 설명하였다.

이처럼 남자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대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흡연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남자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중재를 통해 흡연태도를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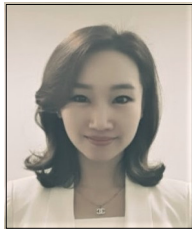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rea Health Statistics 2019: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III-1)", 2020.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7.
- [3] K. E. Lee, N. S. Kim, "Smoking behavior and hardiness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8, No. 1, pp.51- 68, Jan. 2001.
- [4] S. R. Shin, D. S. Lee, J. H. Park, "The effect of life smoking cessation program-multidisciplinary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0, No. 1, pp.110-121, Feb. 2000.

- [5] A. Mustafa, N. Motohiro, G. John, "Stress response dysregulation and stress-induced analgesia in nicotine dependent men and woman", *Journal of Biological Psychology*, Vol. 93, pp.1-8, Apr. 2013.
DOI: <https://doi.org/10.1016/j.biopsycho.2012.12.007>
- [6] M. Kleinjan, A. F. Visser, R. Engels, "Examining nicotine craving during abstinence among adolescent smokers: The roles of general perceived stress and temptation-coping strategies", *Journal of Substance Use*, Vol. 17, No. 3, pp.249-259, Oct. 2011.
DOI: <https://doi.org/10.3109/14659891.2011.565110>
- [7] S. S. Kim, J. J.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nd job-seeking stress, job-seeking anxiety, and self-esteem in college students: Focused on college students in local citi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 8, No. 6, pp.93-110, Dec. 2017.
DOI: <https://doi.org/10.22143/HSS21.8.6.7>
- [8] K. H. Rhim, J. H. Lee, M. K. Choi, C. J. Kim,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drinking and smoking habit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Vol 30, 1, 57-70, Jun. 2004.
- [9] H. K. Park, "A study on the basis for the smoking experience of male university students",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Vol. 8, No. 4, pp.69-100, Nov. 2019.
DOI: <https://doi.org/10.30974/kaice.2019.8.4.69>
- [10] S. C. Kobasa, "Stressful life events, personality and health: An inquiry to hardiness", *Journal of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Vol. 37, No. 1, pp.1-11, Jan. 1979.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37.1.1>
- [11] N. J. Kim, H. S. Hong, "Influence of stress, self-efficacy for smoking cessation, smoking temptation and nicotine dependency in male college students who smoke",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 18, No. 1, pp.1-8, Feb. 2016.
DOI: <https://doi.org/10.7586/jkbns.2016.18.1.1>
- [12] J. S. Kim, S. O. Lee, "Effects of a smoking cessation program on processes of change, situational temptation and decisional balance in male university student smokers,"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Vol. 17, No. 2, pp.113-123, Nov. 2010.
DOI: <https://doi.org/10.5953/JMJH.2010.17.2.113>
- [13] E. H. Seo, "Dietary habits of smokers and non-smokers among a few male university students residing in the gyeongnam area and factors affecting their smoking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Food and Nutrition*, Vol. 31, No. 5, 604-615, Oct. 2018.
DOI: <https://doi.org/10.9799/ksfan.2018.31.5.604>
- [14] K. Waters, K. Harris, S. Hall, N. Nazir, A. Waigandt, "Characteristics of social smoking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Vol. 55, No. 3, pp.133-139, 2006.
DOI: <https://doi.org/10.3200/JACH.55.3.133-139>
- [15]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39, No. 2, pp.175-191, May, 2007.
DOI: <https://doi.org/10.3758/bf03193146>
- [16] P. Bartone, R. J. Ursano, K. M. Wright, L. H. Imgraham, "The impact of a military air disaster on the health of assistance worker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Vol. 177, pp.317-328, Jul. 1989.
DOI: <https://doi.org/10.1097/00005053-198906000-00001>
- [17] H. Y. Cho, "The volunte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continuance of telephone counseling activities: Focused on subjective well-being, hardiness, helping beliefs",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Seoul, pp.1-55, 1998.
- [18] S. W. Hwang,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Pusan, pp.1-56, 1998.
- [19] H. J. Kim, Y. R. Kang,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eking stress and career maturity of dance major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Dance Education*, Vol. 8, No. 2, pp.57-64, Dec. 2008.
- [20] WHO, "Guidelines for the conduct of tobacco smoking surveys of the general population", Report of a WHO meeting held in Helsinki, Finland, 1982.
- [21] Y. K. Park, Y. J. Kang, "Behavior, knowledge and attitude on smoking of primary school children",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Vol. 17, No. 9, pp.798-809, Sep. 1996.
- [22] N. S. Kim, M. K. Kwon, H. W. Kim, K. E. Lee, "Ways of coping and health-related hardiness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4, No. 2, pp.239-247, May. 2007.
- [23] S. E. Pollock, M. E. Duffy, "The health-related hardiness sca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analysis", *Nursing research*, Vol. 39, No.4, pp.218-222, Jul. 1990.
DOI: <https://doi.org/10.1097/00006199-199007000-00008>
- [24] H. S. Park, K. N. Kim, "Factors affecting burnout in ICU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7, No. 3, pp.409-418, Aug. 2010.
- [25] H. C. Cho, "A study on the stress involved in preparing for employment on college student's happiness: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4, No. 1, pp.157-184, Feb. 2013.
- [26] S. S. Lee,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smoking knowledge and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in some reg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Vol. 9, No. 1, pp.113-121, Dec. 2007.
- [27] R. E. Rhodes, K. S. Courneya, "Threshold assessment of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for predicting exercise intention and behavior",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Vol. 6, No. 3, pp.249-361, May. 2005.
DOI : <https://doi.org/10.1016/j.psychsport.2004.04.002>
- [28] H. N. Kim, K. S. Lee, Y. Lee, E. J. Cho, K. M. Kim, "The association of stage of change for smoking cessation with smoking knowledge and attitude in women college students of Seoul,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36, No. 1, pp.69-79, Mar. 2019.
DOI : <https://doi.org/10.14367/kihep.2019.36.1.69>
- [29] S. W. Park, "A review of cigarette smoking-related behaviors and health problems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28, No. 5, pp.35-49, Dec. 2011.
- [30] M. J. An, A. Y. Kang, Y. A. Kim, M. J. Kim, Y. L. Kim, H. W. Kim, Y. Y. Hwang, "Comparison of academic engagement, academic burnout, stress, and social support by grade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 30, No. 2, pp.113-123, Aug. 2017.
- [31] S. J. Kim, E. Y. Jung, "A relevance on health perception, health knowledge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8, pp.5394-5403, Aug.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8.5394>
- [32] E. S. Bae, H. S. Kang, "Influenc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family function, and job-seeking stress on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12, No. 4, pp.181-192, Jun. 2018.
DOI : <https://doi.org/10.21184/jkeia.2018.6.12.4.181>
- [33] J. H. Seol, "The role of psychological hardiness and social support between stress and mental health among military personnel: A mediated moderation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23, No. 1, pp.57-79, Jan. 2018.
DOI : <https://doi.org/10.17315/kihp.2018.23.1.004>
- [34] A. E. Brown, M. J. Carpenter, E. L. Sutfin, "Occasional smoking in college: who, what, when and why?", *Addictive Behaviors*, Vol. 36, No. 12, pp.1199-1204, Dec. 2011.
DOI : <https://doi.org/10.1016/j.addbeh.2011.07.024>
- [35] L. Fainsilber, N. Stettler, K. Gurtovenko, "Traumatic stress symptoms in children exposed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role of parent emotion socialization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bilities", *Social Development*, Vol. 25, No. 1, pp.47-65, Sep. 2015.
DOI : <https://doi.org/10.1111/sode.12151>
- [36] M. J. S. Hanson, "Attitudes and perceptions about cigarette smoking among nonsmoki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Nurse Practitioners*, Vol. 30, No. 2, pp.60-63, Feb. 2018.
DOI : <https://doi.org/10.1097/JXX.000000000000005>

이 인 숙(In Sook Lee)

[정회원]



- 2004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2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2014년 2월 : 세명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한남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아동청소년 건강, 부모 양육

송 민 선(Min Sun Song)

[종신회원]



- 2002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5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7년 3월 ~ 2013년 2월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관심분야〉

만성질환간호, 노인간호, 건강증진